디지털 하면 편할 줄 알았습니다

고 광 무 / 본수치과

치과에서의 디지털이 빠르게 발전하고 대중화되고 있다. 구강스캐너는 개원 시 기본적으로 도입해야 할 장비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캐드캠 시스템을 이용한 보철 디자인 및 제작 까지도 원내에서 시행하는 치과가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지속적인 발달과 다양해진 교육의 기회로 디지털 치과로의 접근이 과거에 비해 많이 수월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원에서는 2014년도부터 디지털을 도입하였고 현재도 계속 배우고 익히며 임상에 활용하고 있다.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을 이미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다른 치과의 모습을 살짝 엿보는 기회를, 아직 디지털 도입이 고민 되거나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치과에서의 디지털 도입 과정 및 현실적인 모습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력 및 경력

- *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전북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 *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 * 현, 본수치과의원 대표원장